

엘리엇 카터의 <현악 4중주곡 2번>에 나타나는 악기 사용의 특징

신혜승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muse220@yit.ac.kr

The Features of Instrumental Use in String Quartet no.2 by Elliot Carter

Hye-Seung Shin
*Dept. of Popular Music, Yeojoo College

요약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작곡가 엘리엇 카터의 현악 4중주곡에 나타나는 구성적 요소에서의 혁신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악기 사용에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카터는 무조성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음악을 듣는 이들이 간결하게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가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악기별로 다르게 부여된 극적인 요소와 대위법적인 기법, 카덴차의 색다른 배치를 통한 구성방식의 혁신을 통해 음색의 혁신, 대위법적 구조를 통한 논리성을 획득하였다.

1. 서론

20세기 작곡가들을 흔히 유파에 따라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유파에 속하지 않고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곡 방식을 채택하는 작곡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작곡가 엘리엇 카터의 경우도 학자에 따라서는 신고전주의 계열의 작곡가라고 규정한 역사서[1]도 있지만 카터는 어떤 특정 악파에 속한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양식을 발전시킨 작곡가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전과는 단절된 새로운 사운드와 음악 재료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실험적 양식들을 추구한 경향과 대공황과 뉴딜 정책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국식 민족주의를 추구한 경향이 20세기 전반기 미국의 양대 주류라고 한다면 카터는 이 두 가지 경향 사이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작곡기법을 모색한 작곡가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현악4중주곡 2번은 구성의 혁신과 악기 사용의 명확한 구분, 대위법의 전개 등 전통과 혁신의 경계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한 카터의 작곡 어법을 잘 구현한 작품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악기 사용에 있어 음악의 요소별로 어떤 배치를 하였고 이를 통해 음색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추구하였는가가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다.

2. 악기에 부여된 음악 요소별 특징들

2.1. 음정의 사용

[표 1] 악기별 사용 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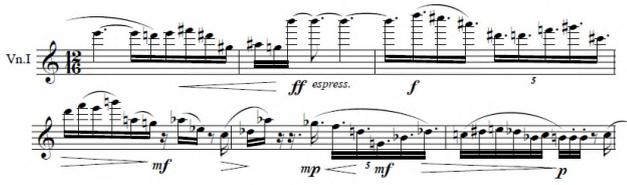
악기	사용 음정
바이올린 I	단3도, 완전4도, 장9도
바이올린 II	장3도, 장6도, 장7도
비올라	증4도, 단7도, 단9도
첼로	완전4도, 단10도

이곡 안에서 4개의 악기는 모두 각기 다른 성격을 부여 받고 있다. 그들은 사용되는 음정, 리듬, 선율 등 모든 면에서 각자의 색채를 갖고 동시에 연주되는데 카터는 “나는 내 악보를 청각적 시나리오로 생각한다. 연주자들은 그들의 악기로 연주한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들로서 그리고 앙상블의 참여자로서 극화되어 있다”[2]이라는 말로 마치 서로 다른 작품인 듯 연주되는 네 악기의 대화와 대조의 악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음정은 악기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음정의 성격과 음역의 깊이에 따라 음색 차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2.2. 리듬의 사용

음정 못지않게 리듬과 선율에도 이들 악기에 부여된 특징은 각기 다르다. 각 악기는 카터가 주로 사용한 4가지 리듬적 요소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올린 I의 경우 주로 ‘자유 리듬(Free Rhythm)’ [3]을 사용하고 있다. 자유 리듬은 연주 시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악보

에 표기된 리듬은 정확하더라도 연주자는 스스로 즉흥적인 형태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 자유리듬이 사용된 3악장 카덴차 부분(마디 385)

바이올린 I과 달리 2악장의 첫 부분을 보면 바이올린 II는 ‘메트로놈적 고동(Metronomic pulses)’[4]의 특징을 보인다. 2악장의 첫 부분에 보면 바이올린 I과 비올라, 첼로는 MM=175의 5/4이지만 2바이올린은 MM=140의 4/4로 기본 단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따져보면 결국 4개의 악기는 박자가 달라도 빠르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같이 흘러가고 있고 이 때 제2 바이올린은 일종의 복리듬(polyrhythm) 체계를 유지하면서 MM=140의 메트로놈적 고동의 효과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규칙적 리듬의 효과를 보여주는 바이올린 II(마디 171)

바이올린 I과 바이올린 II가 자유리듬과 규칙적 리듬으로 대조를 보인다면 비올라는 감정이 풍부하고 악상의 변화가 심도 있게 표현되는 ‘루바토 리듬(Rubato rhythm)’이 주로 사용되었고 첼로의 경우는 ‘가속·감속의 리듬(Accelerating and ritarding pulse) [5]’이 많이 등장한다.



[그림 3] 감속 리듬이 사용된 1악장의 첼로 부분(마디 1-6)

이와 같이 음정, 리듬 등 4개의 악기에 부여된 다른 성격들은 현악4중주 2번의 전반에 걸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는 4악장에 이르러 비로소 융화된다. 각 악기들은 서로의 특성을 교환하며 악기 간에 보여주던 뚜렷한 특징을 서로 공통된 형태의 악상으로 표현하며 발전한다. 그리고 이 곡의 절정에 이르면 또 다른 특징적 리듬의 요소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차 리듬’[6]의 등장이다. 카터는 3:4:5:6:7의 비율로 진행되는 리듬을 각 악기 간에 교차시킴으로써 곡의 클라이맥스를 이끌고 있다.

3. 결론

카터의 특징적인 작곡 기법들은 이전 시대의 서양 음악에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카터는 이러한 음악적 부분들을 지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음정과 리듬 등의 요소를 각 악기마다 뚜렷하게 부여함으로써 음색상의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였다. 카터의 현악4중주곡 2번은 4악장을 제외한 각 악장의 끝에 카덴차를 포함시킴으로써 곡 형식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7]에서 구성 방식의 혁신을 보여주며 음악의 각 요소별로 악기를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음색상의 새로운 실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4가지 리듬적 요소를 각기 다른 악기에 배치한 점이 기존 4중주곡과 차별화된다. 4악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융합이 되는 이러한 대조성은 교차리듬을 통해 작품의 클라이맥스를 강조한다.

참고문헌

- [1] Griffiths, Paul, *Modern Music*, 박경중 옮김, 삼호출판사, 208-211쪽, 1987.
- [2] Martin, William R. and Drossin, Julius, *Music of the Twenties Centur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336쪽, 1980.
- [3] Griffiths, Paul, 앞의 책, 삼호출판사, 208-211쪽, 1987.
- [4] 서우석/김은혜 공역, 『음악분석연구』, Katz, Adel.T., *Challenge to Musical Tradition*, 수문당, 183-185쪽, 1982.
- [5] 전지호, 『음악분석연구』, 예술, 109-117쪽, 1996.
- [6] R.F.Goldman, "*The Music of Elliot Carter*", MQ, 361쪽, 1990
- [7] Camienm Roger 『서양음악의 유산』, 김학민 옮김, 688-690쪽, 1993.